



11월  
넷째 주



가정예배

##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

찬양해요

찬송가 563장

기도해요

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

말씀을 읽어요

열왕기상 3:21-28

- 21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젓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
- 22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
- 23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
- 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
- 25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받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받은 저 여자에게 주라
- 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
- 27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
- 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

## 말씀 이해하기

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였습니다. 그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명 재판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한 집에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. 그 중 한 여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를 잃게 되자 그녀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하고는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습니다. 솔로몬은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.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

## 좀 더 생각해보기

- ① 두 여인이 서로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습니까(25절)?

산 아이를 로 나누어 은 이 여자에게 주고 은 저 여자에게 주라

- ② 산 아이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판결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(26절)?

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   마음소서

- ③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. 솔로몬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(27절)?

- ④ 잠언 9:10에 “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”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.

\* 경외 : 공경하고 두려워함

## 기도해요

하나님,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고,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